

코로나 극복 농가 바우처 지원

장수군, 5개 업종 2019년 대비 매출액 감소 증빙 시 100만원 상당 선불카드 지급

장수군이 코로나19 영향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농·축산인과 업체 등에게 바우처 지원사업을 추진한다고 12일 밝혔다.

이 사업은 농림축산식품부 주관으로, 판로 제한과 매출 감소 등 경영상 어려움을 겪는 농가 지원을 위해 시행하는 사업이다.

지원 대상은 화훼(관상수류 포함), 겨울 수박, 학교급식 납품 친환경 농산물, 말 생산 농가, 농촌체험휴양마을 등 5개 업종이다.

2019년 대비 지난해 매출액 감소가 확인된 경우에 한해 지급요건을 심사 후 100만원 상당의 선불카드를 지급할 예정이다.



장수군이 코로나19 영향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농·축산인과 업체 등에게 바우처 지원사업을 추진한다.

30일까지 신청하면 된다.
현장 접수는 14일부터 30일까지 농지소재지 담당 읍·면사무소에 방문해

신청할 수 있다.

장수군은 서류심사를 거쳐 농가당 바우처 100만원 상당의 선불카드를 다음 달 14일부터 지급할 예정이다. 단 중앙정부에서 긴급지원금 형태로 지원하는 사업은 중복수급이 제한된다. 제한되는 사업은 소상공인 비탈복 자금 플러스, 긴급고용 안정지원금, 한시생계지원금, 코로나 극복 영여지원 바우처, 코로나 극복 영립지원 바우처 등이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농지 소재지 읍·면사무소 또는 코로나 극복 영농지원 바우처 콜센터(1670-2830)에 문의하면 된다.

류지봉 농업정책과장은 "코로나19 방역조치로 판매부진, 방문객 감소 등으로 경영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농업인들에게 도움이 되기를 바란다"며 "기간 내 대상 농가들이 빠짐없이 신청할 수 있도록 홍보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장수=고관호 기자

“한 달 살아보기로 무주 매력 느껴요”

군, 귀농·취촌 희망 도시민 대상 프로그램 운영

무주군은 안성면 솔다막 체험휴양마을에서 무주에서 한 달 살아보기(이하 한 달 살아보기) 프로그램을 운영 중이라고 밝혔다.

지난 5일 시작된 '한 달 살아보기'는 귀농·취촌을 희망하는 도시민이 무주에 거주하며 일과 생활을 체험하고 이웃과 교류할 수 있는 기회를

가질 수 있도록 한다는 취지에서 마련한 것으로, 군과 무주군귀농취촌협의회가 공동 주관한 가운데 5월 4일까지 ▲마을탐방과 ▲영농실습, ▲무주군 정착사례 공유(귀농·취촌 선배가 들려주는 무주이야기), ▲귀농·취촌이해(무주의 마을이야기), ▲마을 간담회(동아리), ▲지도 들고 무주 돌아보

기, ▲농가 일손 돕기, ▲팔기 체험(팔기 파기 등), ▲체재형 가족실습농장 둘러보기, ▲8차 산업 체험 등 '강의'와 '소통', '실습' 등의 프로그램을 진행한다.

군관계자는 "농촌생활에 안정적으로 적응·정착할 수 있도록 농촌이해, 지역교류·탐색, 영농실습 등을 내용으로 균형 잡힌 커리큘럼을 마련했다"며 "한 달 살기가 농·산촌과 무주의 매력을 보여주는 장치이자 귀농·취촌 유도제가 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고 밝혔다.

/무주=전문선 기자

무주군, 과수 개화기 현장지도

무주군이 고품질 과수 생산을 위한 개화기 현장지도에 나선다고 12일 밝혔다. 무주군에 따르면 무주지역 과수 개화시기를 맞아 사과와 복숭아에 대한 병해와 늦서리 피해 예방을 위한 현장 기술 지도를 실시한다.

저온피해 방지를 위한 미세살수 장치의 점검과 수정용 방화곤충 방사, 인공수분 방법을 담은 리플렛 배부 등 안전한 수정을 위한 현장 기술 지도를 실시할 계획이다. 또 고품질 사과를 비롯한 복숭아 생산을 위한 인공수분용 꽃가루 지원 사업을 추진하고 있으며, 수정률 향상을 농가소득 향상에 기여하고 있다. /무주=전문선 기자

무주군, 농촌신활력플러스 행정 민간협의회 구성

무주군이 농촌신활력플러스 공모 선정을 위한 행정조직과 민간조직을 구성하고 본격 준비 체제에 돌입했다.

이를 위해 군은 지난 8일 군청 대회의실에서 농촌신활력플러스 행정협의회와 민간협의회의 구성을 통해 지역사회의 산업, 경제, 관광, 교육 등 농촌혁신을 위한 의사협의체를 구축했다.

이날 회의를 통해 농촌신활력플러스 기본(예비)계획 수립과 분야별 업무공유를 통한 상호성 있는 의견을 수렴했다.

행정협의회는 경제, 사회, 교육, 관광 등 10개 부서 15명이 참여하고 민간협

의회 또한 13개 단체가 참여해 농촌활력 사업에 기반이 될 아이템을 함께 개발하는 데 적극 총력을 쏟을 계획이다.

군은 이러한 민·관 네트워크를 구축해 사업 발굴과 함께 정보 및 아이디어를 확보하고 각종 사업의 실질적인 연계를 통한 종합 플랫폼 역할을 수행하게 된다.

농림축산식품부는 오는 9월중 농촌신활력플러스 대상 지자체를 선정할 계획이며, 무주군은 오는 5월 중 정부에 공모를 신청할 계획이다. /무주=전문선 기자



제268회 진안군의의회 임시회

23일까지 주요 현안 군정 질문·조례안 심사 등 진행

진안군의의회(의장 김광수)는 12일부터 23일까지 12일간의 일정으로 제268회 임시회를 개최했다.

이번 임시회에서는 주요 현안에 대한 군정 질문과 2020년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처리결과 보고, 그리고 조례안 심사 및 주요사업장 현지 확인 등의 일정으로 진행된다.

세부 일정으로는 12일에 개최하여 13일까지 양일간에 걸쳐 군정에 관한 질문을 실시하고, 운영행정위원회와 산업건설위원회에서는 소관별로 '진안군 통합재정안정화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안' 등 5건의 조례 제·개정안을 심의한다.

또한 14일부터 16일까지는 2020년도 행정사무감사 처리결과 보고 청취를 19일 20일 양일간은 국립지덕권 산림치유원 등 12개소의 주요사업장 현지 방문을 진행하고 23일 제3차 본회의를 끝으로 부의된 의안을 의결하며 임시회 일정을 마무리한다.

신갑수 의원은 제268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에서 군정질문에서 "진안군의 예산규모는 2018년 4,000억여 원에서 매년 꾸준히 증가하고 있으나, 재정자립도는 최하위권에 머무르고 있는 상황이다"며 "부족한 지방재정을 효율적으로 확충하고 지역발전에 필요한 신규 사업을 위해 국가예산 및 특별교부세 확보가 절실하다"고 주장했다.

특히 국가예산에 대한 체계적인 관리의 필요성을 언급하며 중앙부처, 전라북도, 국회의원과 지역 현안사업을 공유하고 사업의 당위성을 공감할 수 있도록 집행부의 적극적인 노력이 필요함을 언급했다.

정옥주 의원은 군정질문에서 "진안군은 이미 2021년 3월말 기준 65세 이상 인구의 구성비가 35%를 넘어 초고령 사회에 진입하였고, 코로나 19의 장기화로 인해 자녀들과의 왕래가 제한되고 있는 상황이다"며 "대면 돌봄

서비스 제공이 어려움을 겪고 있는 상황에서 홈케어나 인공지능 AI스피커 등을 활용하여 어르신들의 행복한 노후를 위해 적극 노력해야 할 것"을 주문했다.

또한 "배움의 열망을 채우고자 주민자치 프로그램으로 한글교실, 성인문예교실, 초·중·고 검정고시반 등이 개설되어 운영되고 있으나 마땅한 공간이 확보되지 않아 진행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상황이다"며 "어르신들의 배움에 대한 욕구를 충족하고, 학업에 전념할 수 있도록 평생학습을 위한 별도의 공간 마련"을 촉구했다.

김민규 의원은 군정질문에서 "진안군청 청사면적은 6,182㎡로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의 지방청사 표준설계 면적 기준인 7,525㎡의 80% 수준이며, 인접 장수군의 1만2,644㎡와 임실군의 1만5,200㎡에 비해 턱없이 모자란 상황이다"며 "부족한 사무공간과 협소한 부지 탓에 행정의 효율성 저하와 민원처리 지연이 반복되고 있는 상황"을 지적했다.

또한 "민원인의 편의 증대와 행정서비스의 질적 향상을 위해 청사 건립은 더 이상 뒤로 미룰 수 없는 과제임을 인지해야 한다"며 "지금이라도 청사 건립에 필요한 자금을 효율적으로 확보하기 위해 '진안군 청사건립 기금 설치 및 운영 조례' 제정과 국토부 공공건축물 리뉴얼 사업 공모 등 장기적인 계획이 필요한 상황이다"고 강조했다.

김광수 의장은 개회사를 통해 "군민의 목소리가 군정에 잘 반영되는 의미 있는 기회가 될 수 있도록 의정활동에 최선을 다해주시기를 바란다"며 "영농철 건조한 날씨와 바람 탓에 작을 실수에도 대형 산불로 이어지기 쉬우니 산불감시 활동과 각종 시설물 관리에 만전을 기해주시길 당부 드린다"고 말했다.

/진안=우태만 기자

지역 소식통

진안 성수면, 공익직불금 마을별 집중 접수 운영

진안군 성수면(면장 이기호)은 2021년 공익 직불금 마을별 집중 신청·접수기간을 운영한다.

12일 원도룡 마을을 시작으로 23일까지 32개 마을별로 시간대를 분산하여 일정을 진행한다.

이번 마을별 집중신청 운영은 코로나19 확산방지 및 고령자가 많은 민원인들의 혼란을 최소화하기 위해 실시하며 신청을 희망하는 농업인은 일정을 확인 후 신청서를 지참하여 성수면 주민정보화실로 방문하여 신청할 수 있다.

이를 위해 면은 농가가 직불금 신청 전 3월말까지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에서 농업 경영체 등록정보를 현황화 작업, 폐경면적 제외하고 실제 경작농지와 면적만 신청해야 하며 농지를 임차해 경작하는 경우에는 반드시 임대차 계약서를 제출할 것을 지속 홍보하고 있다.

먼저 기본형 공익직불금은 소농직불금과 면적직불금으로 나눠 한 가지만 신청하면 된다.

소농직불금 직불금 지급대상 농지 면적, 소유면적 등 별도의 8가지 자격요건을 충족한 농업인은 정액 12만원을 받고 그 외의 농업인은 면적 직불금 지급대상자로 분류돼 면적구간별, 진흥·비진흥, 논·밭에 따라 직불금을 차등 지급받는다.

/진안=우태만 기자

진안군, '축산농가 가축 사육밀도 점검하세요'

진안군은 12일 가축분뇨 발생량 증가와 축산악취의 주요 원인인 과잉 사육을 방지하고 지속가능한 친환경 축산 육성을 위해 축산농가 적정사육기준(사육밀도)점검을 지속적으로 실시하고 있다고 밝혔다.

군은 농가에서 축산물 이력제 홈페이지에서 적정 사육면적과 현재 사육하고 있는 가축의 사육두수를 입력하여 적정사육기준을 확인하고 축사면적 변경, 축산물 이력제 신고 등 변경사항에 대해서도 점검해보고 변경사항이 있을 경우 축산부서에 연락 및 방문하여 변경해야 한다고 안내하고 있다.

/진안=우태만 기자

아직도 망설이십니까?

전주매일 금연캠페인

